*2016.1.10 첫 예배 드린 지 16주년 기념예배*

**좋은 이웃이 됩시다!**

**<누가복음 10장 25-37절>**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탁! 하고 바로 연상되는 것이 있었을 텐데,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질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이란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많은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확실한 진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순간에 질병으로, 사고로, 혹은 그저 명을 다하여 이 땅에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에서의 삶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죽음에 의해 중단되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란 말 속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인간의 삶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가능케 하는 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이 똑같이 숨을 쉬며 산다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못한 삶이 있습니다. 의미와 활력으로 충만한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무지와 방탕의 삶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에 반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더 복된 삶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미래에 질식되어 두려워하고 안달하며 공허하게 이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신자의 삶 속에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영원에 속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며 살지만, 어떤 이는 더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삽니다.

어떤 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늘 움켜쥐려는 마음으로 살지만, 어떤 이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늘 손을 펴 나누어주며 삽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제 어머니는 라면을 반 개만 끓여 저를 주시고 당신은 국물만 마시셨습니다.

후에 좀 더 철이 들어 그 때를 떠올리며 저는 ‘어머니께서 날 위해 정말 고생하셨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자식 낳고 부모가 되어 살다 보니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때 어머니는 다른 생명으로 사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을 위한 고생을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느끼게 하는 무언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부모 안에서 역사한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부모이면서도 그러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반면 자식이 아닌 생판 남에게도 그러한 생명으로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치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나에게 못 되게 굴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 …… 그들은 무언가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처럼 뭔가 다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무엇이 영생의 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율법교사는 그 영생의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영생의 삶은 곧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한결같이 관통하는 진정 사는 길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율법교사의 문제는 이 영생의 길을 알되 그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선악을 알되 선을 행하는 데 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알되 하나님과 이웃을 실제 사랑하는 데 약하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므로 영생의 삶을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 순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무언가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살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복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런 사랑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어 한 레위인도 역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도중 거기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앞의 두 사람과 달리,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기를 청하고, 비용이 더 들면 후에 돌아와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 잠시 그곳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누가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실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할 만한 좋은 이웃을 찾지 말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류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편견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의 대상으로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 목록에서 제외되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분노의 대상으로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 목록에서 역시 제외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유대 땅에서 우연히 만난 한 불우한 이웃에게 편견 없이 자비를 베풉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 증오의 감정을 압도한 것입니다.

그를 향해 가까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 일로 인해 혹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제압했던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고 합니다.

여행 중 자신의 위급상황을 대비한 소중한 상비약을 거기서 다 써버린 것입니다.

상처 부위를 싸매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붕대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옷을 찢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오랜 여행에 지쳐 있었을 텐데도 환자를 위해 걷는 수고를 감수한 것입니다.

또한 그 이튿날 주인에게 돈을 주며 잠시 자기 대신 그를 돌봐주길 청했다 합니다.

그는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도왔었던 것이고, 또한 끝까지 책임지고 그를 도우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웃 사랑의 바른 모습입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편견의 벽을 스스로 허물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요 또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 2016년 우리 교회 표어를 “좋은 이웃이 됩시다” 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자는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얘깁니다.

그러니 난 절대 못할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며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서있는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이웃의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는 집 주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길거리에서 보게 되는 초라하고 더럽고, 때로 무섭기도 한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꼬빌리시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이웃으로 산다는 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인공동체 교우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체코, 일본, 헝가리, 콩고 등 다양한 배경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체코 인구의 1% 밖에 안 되는 연약한 체코 개신교회에게 우리 한국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이웃으로 존재한다는 건 또한 무슨 뜻이겠습니까?

체코 지방의 가난한 교회들에게, 이 땅의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에게, 몸이 아프거나 삶에 의욕을 잃었거나, 힘이 없어 사회에서 무시 받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서 우리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다른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여러 질문들에 대해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답을 스스로 고민하며 찾아가는 일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과제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좋은 이웃의 삶’을 노력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수한 질문들을 던져야 할 지 모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선행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참 이웃사랑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그 방법과 태도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과 고뇌, 인내와 자기부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자 했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경험이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것입니다.

받아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끝없이 달라고만 하는 사람, 내게서 열 가지를 얻고도 한 가지가 맘에 안 든다고 비난하는 사람,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듯 최소한의 예의와 양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과의 만남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면하게 하고, 정말 대가 없이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인이 내게 가한 악을 능히 선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선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때문에 ‘좋은 이웃’에 대한 우리 자신의 판단과 노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좋은 이웃이 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것은 그런 나를 위해 값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깊이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더 좋은 이웃이 되어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이웃, 남이 생각하는 좋은 이웃을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웃으로 점점 빚어져 갈 것입니다.

설령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에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은 나를 당장에 ‘좋은 이웃’이라 말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한 사랑의 노력을 정확히 아시고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좋은 이웃’의 삶을 노력합시다! 이 사랑의 삶 속에는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2016년 올 한 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닮은 좋은 이웃의 모습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속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당신께 값없이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두시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자 저희가 함께 노력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